

대한민국 식량 공급 · 식품 안전을 지키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재단 4차년도 연보

2013년 1월 - 12월





## [목 차]

· 이사장 인사말	02
· 임원 및 직원 명단	03
· 4차년도 사업내용	
- 이사회 개최	05
- 연구사업	05
- 학술회의	07
- 저술 출판사업	10
-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진행사항	11
· 4차년도 재무보고(2013년 12월 31일 기준)	13
· 2014년도 사업계획	14
· 2014년도 예산	15
· 이사장 칼럼	16

## 이사장 인사말



지난 2월 겨울철 바이칼 명상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주관하여 72명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영하 3-40도의 바이칼호 얼음위에서 명상하며 강연을 듣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꿈너머 꿈을 이야기하고, 용서와 화해, 사랑과 감사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고도원님의 열정에 감동한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식량산업 분야도 사회적 책임과 상생 가치 창조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식품분야가 정부 부처명에 살아남느냐 하는 문제로 촉각을 세웠고, 새로 확대 개편된 식약처의 성격과 진로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졌던 한해였습니다. 부정 불량식품이 새정부의 4대약 근절 목표의 하나가 되어 식품산업이 새로운 도전을 받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재단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와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4차년도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정책연구과제로 채택되어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김학용의원실 주최로 ‘쌀의 증산과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가 열렸고, 과학기술한림원 주최로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식량정책 이대로 좋은가?’ 원탁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식품안전협회가 수행한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결과는 오송에서 식약처 직원들과 식품안전관리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 되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집요하게 제기해온 유전자변형(GM)식품의 표시확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의 환경운동가 마크 라이너스를 초청하여 토론회와 대학 강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GM반대운동의 반과학적이고 국익을 무시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마크 라이너스를 적시에 초청하여 GM식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다소나마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며 재단 운영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순수한 민간연구단체로서 우리나라 식품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좋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에 관심을 가지고 식량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통일 식량을 준비하며 식품 안전관리를 도와주는 사회 공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재단의 이사님들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일에 더 많은 식품기업들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식품기업과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식량공급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자랑스러운 역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3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이철호

# 1. 임원 및 직원 명단

## 【고 문】



**권태완** 인제대학교 명예교수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식품과학 박사  
KIST 식품과학연구실장, 부원장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초대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콩세계과학관 건립추진위원장

## 【이사장】



**이철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덴마크왕립수의농과대학 식품학 박사  
미국 MIT공과대학 연구원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고문관



**이현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미네소타대학교 화학공학 박사  
미네소타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대통령실 과학기술특별보좌관

## 【이 사】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이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발효화학 석사  
서울대학교 미생물학 학사  
CJ제일제당 대표이사  
CJ제일제당 총괄 부사장  
대상 바이오사업총괄 중앙연구소장 전무  
대상 제약사업본부장 이사



**전중운** 삼양식품 명예회장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 석사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삼양식품 대표이사 회장  
삼양축산 대표이사 회장  
삼양식품 명예회장



**박관희** 대선제분(주) 대표이사 회장

펜실베이니아대학교대학원 석사  
서울상공회의소 제20대 대의원선출  
경북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대선제분 대표이사 회장  
한국쌀가공식품협회장



**김학용**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

중앙대학교 경제학 학사  
제18, 19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농림수산물위원회 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 준** (주)농심 대표이사 사장

중앙대학교 사회사업학과 학사  
농심 대표이사 사장  
농심 국제사업총괄 사장  
농심 국제담당 이사  
농심 미국지사 사장

## 【재단 사무국】



문성환 삼양제넥스 대표이사 사장

헬싱키대학교대학원 경영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삼양제넥스 대표이사 사장  
휴비스 대표이사 사장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경영협의회 회장  
삼양사 경영기획실장 부사장



김미경 사무간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

## 【재단 연구부】



명형섭 대상(주) 대표이사 사장

고려대학교 농화학과 학사  
대상 대표이사 사장  
대상 식품사업총괄 전무  
대상 식품사업총괄 상무  
대상 전분당사업본부 서울공장장  
미원 기술연구소



이꽃임 박사

동덕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식품공학과 석사  
영국 Sheffield 대학교 의과대학  
분자생물/유전학 박사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후 연구원



최병순 한국제분(주) 대표이사

영남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한국제분, 동아제분 이사  
동아제분 상무  
한국제분(주) 대표이사



이숙중 박사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석사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원 이학박사  
고려대학교 부설  
건강기능식품연구센터 연구원

## 【감 사】



문헌팔 한국종자포럼 이사장

캘리포니아대학교대학원 유전학 박사  
농촌진흥청 차장  
한림원 식량안보과학특별위원장  
한국종자포럼 이사장



이민경 연구원

순천향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석사  
중앙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사수료  
고려대학교 부설  
건강기능식품연구센터 연구원

## 【출판부】



박현진 고려대학교 교수

미국 조지아대학교 식품공학과 박사  
고려대 식품공학과 석사  
미국 클렘슨대학교 포장공학과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김유원 사장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도서출판 유림문화사 설립  
한국실업검정교과서 이사  
미국도서관협회총회 한국대표  
한국청소년도서협의회 이사  
도서출판 유림문화사 대표(현재)

## 2. 4차년도 사업내용

### 2-1. 이사회 개최

#### (1) 1차 정기이사회



- \* 일 시 : 2013년 4월 11일 오전 7 : 30
- \* 장 소 : 프라자호텔, 세븐스퀘어
- \* 회의내용 : 2012년 업무·보고 및 결산보고, 2013년 사업계획 심의, 2013년 운영예산 심의, 정관 변경 (임원진 변경, 이철호 이사장, 박관희, 최병순 이사 재임, 박현진 감사 신임, 박성철 이사, 황한준 감사 퇴임)

#### (2) 2차 정기이사회



- \* 일 시 : 2013년 11월 06일 오전 7 : 30
- \* 장 소 : 조선포텔, The Ninth Gate Grill
- \* 회의내용 : 2013년 업무보고 및 가결산보고, 2014년 사업계획 심의, 2014년 운영예산 심의, 재단 연구과제 제안

### 2-2. 연구사업

#### (1) 2013년도 재단 연구과제

가. 지정과제 -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3년 1월 ~ 2013년 12월

\* 연구수행기관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 연구비 : 3,000만원(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 연구책임자 : 이철호
- \* 연구원 : 문현팔, 김용택, 이꽃임, 이숙중
- \* 진행사항 : 제 9회 식량안보세미나 “쌀의 증산과 수요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4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 2013년 5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연구과제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대책” 연구를 수탁 받아 연구 계속 진행 함.
- \* 연구결과를 단행본 ‘선진국의 조건, 식량자급’ 출판 예정.

#### 나. 공모과제 -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선진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 \* 연구기간 : 2013년 1월 ~ 2013년 12월
- \* 연구수행기관 : 한국식품안전협회
- \* 연구비 : 2,000만원(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 연구책임자 : 신동화
- \* 연구원 : 김영수
- \* 진행사항 : 제4차 식량안보간담회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8월 16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
- \* 연구결과를 12월 9일 오송 식약처에서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및 선진화 방안’ 토론회 개최

## (2) 외부 수탁과제

#### 다. 과학기술한림원정책연구과제 -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대책

- \* 연구기간 : 2013년 5월 ~ 2013년 12월
- \* 연구수행기관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 연구비 : 3,000만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 연구책임자 : 이철호
- \* 연구원 : 신동화, 김영수, 김용택, 문현팔, 이숙중, 이꽃임, 이민경, 김미경
- \* 진행사항 : 제3차 식량안보간담회 “식용콩 자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7월 2일, 고려대학교 / 제5차 식량안보간담회” 보리의 종합이용 계획“, 9월 24일, 고려대학교 / 제6차 식량안보간담회 “축산 사료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10월 25일, 고려대학교 개최
- \* 최종보고서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연구보고서로 인쇄 발간 예정

#### 라. 농촌진흥청 과제 - 쌀 자급의 파급효과 및 식량작물의 애그리비즈니스 연관관계 분석 중 ‘가치사슬을 바탕으로 한 R&D 과제 발굴 및 발전방향’ 위탁과제

- \* 연구기간 : 2012년 8월 ~ 2013년 12월
- \* 연구수행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유통연구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 연구비 : 1,000만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연구책임자 : 이꽃임
- \* 연구원 : 이장은, 이철호
- \* 연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2건의 정책 제언을 함.

## 2-3. 학술회의

### (1) 제9회 식량안보세미나-쌀의 증산과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

- \* 일시 : 2013년 4월 16일(화) 14:00 ~ 17:30
-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 주최 : 국회의원 김학용
- \* 주관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 후원 : 농림수산물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 \* 발표자 : 성명환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철호 이사장(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 토론자 : 신동화, 김용택, 박상희, 송광현, 심재규, 위남량, 윤홍선, 이정환
- \* 참석인원 : 130여명, 자료집 300부 제작 배포



### (2) 제10회 식량안보세미나- GMO의 과학적 진실과 이용

- \* 일시 : 2013년 6월 4일(화) 13:30 ~ 17:30
- \* 장소 : 서울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
- \* 주최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 발표자 : Mr. Mark Lynas(영국 환경운동가), 경규항 교수(세종대)
- \* 토론자 : 이철호, 김정년, 박기환, 박태균, 이향기, 조윤미, 조현석, 최동미
- \* 참석인원 : 150여명, 자료집 800부 제작 배포(국회의원 전원에게 송부)



### (3) Mark Lynas 고려대 초청 강연 - Global Warming and Food Security

- \* 일시 : 2013년 6월 5일(수) 10:30 ~ 12:00
- \* 장소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동관) 오정강당

- \* 주최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 \* 참석인원 : 100여명, 자료집 700부 제작 배포 (국회의원 전원에게 송부)



#### (4)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 원탁토론회 -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식량정책 이대로 좋은가?

- \* 일시 : 2013년 6월 11일
- \* 장소 : 프레스센터
- \* 주최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 발표자 : 이철호 이사장 - 통일식량 확보를 위한 정책제언
- \* 토론자 : 국회의원 윤명희, 김춘진 의원,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 김재수 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문헌팔 박사, 김용택 박사
- \* 참석자 : 100여명

#### (5) International Symposium on Food Security

- \* 일시 : 2013년 8월 28일~30일
- \* 장소 : 천안 예술의전당
- \* 주최 : 한국식품과학회
- \* 후원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 발표자 : Walter Spiess(독일), Mary Schmidl(미국), 장동희(한국카길), 김제규(전 농촌진흥청)
- \* 참석인원 : 1,500여명
- \* 제80차 한국식품과학회 총회 학술대회 국제심포지엄, 재단이 프로그램 조직, 후원금 1,000만원 지출

#### (6) 제 11회 식량안보세미나 -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및 선진화 방안

- \* 일시 : 2013년 12월 9일
- \* 장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주최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 후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발표자 : 신동화 교수(한국식품안전협회), 강봉한 국장(식품의약품안전처)
- \* 토론자 : 김명철, 박지용, 이근호, 이향기, 조윤미

\* 참석인원 : 160여명, 자료집 300부 제작 배포



## (7) 식량안보 간담회

### 가. 2차 식량안보간담회

- \* 주제 : 쌀의 자급 유지와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 방안
- \* 일시 : 2013년 3월 6일 11:00 ~ 13:30
- \* 장소 : 모심(고대병원 앞)
- \* 참석자 : 문헌팔, 위남량, 김용택, 김기봉, 이철호, 이꽃임, 김미경

### 나. 3차 식량안보간담회

- \* 주제 : 식용 콩 자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 일시 : 2013년 7월 2일 11:00 ~ 12:30
- \* 장소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 동관 412호
- \* 참석자 : 문헌팔, 김용택, 신동화, 김석동, 문갑순, 홍주식, 백인열, 위남량, 이철호, 이숙중, 이꽃임, 이민경

### 다. 4차 식량안보간담회

- \* 주제 :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
- \* 일시 : 2013년 8월 16일(금) 10:00 - 12:00
- \* 장소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 동관 412호
- \* 참석자 : 신동화, 김민규, 김창민, 김정선, 박경진, 문은숙, 오덕환, 이정근, 전향숙, 유순영, 이민석, 정윤희, 이철호, 이꽃임, 이숙중, 이민경

### 라. 5차 식량안보간담회

- \* 주제 : 보리의 종합이용계획
- \* 일시 : 2013년 9월 24일 11:00 ~ 13:00
- \* 장소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 동관 412호
- \* 참석자 : 신동화, 김영수, 위남량, 최재성, 홍주식, 김경호, 김성수, 박현진, 박정복, 정유성, 이철호, 이숙중, 이민경

## 마. 6차 식량안보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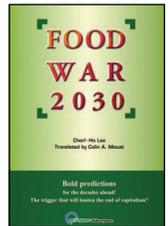
- \* 주제 : 축산 사료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 \* 일시 : 2013년 10월 25일 15:00 ~ 18:00
- \* 장소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 동관 412호
- \* 참석자 : 신동화, 문헌팔, 김용택, 손용석, 노경상, 김제규, 조윤미, 이상만, 이철호, 이숙중, 이꽃임

## 2-4. 저술 출판사업

### (1) 단행본 (도서출판 식안연)

#### 1) Food War 2030

- 저자 : 이철호, 번역자 : Colin A. Mouat
- 출판일 : 2013년 3월 12일 (초판 500부 제작)
- 정가 : US\$ 20
- 판매처 - 아마존, 재미식품과학자협회(KAFITA, 회장 운영로)에서 40부 구입하여 미국 주요대학 도서관에 기증, 한국개발원(KDI) G-20 Global Leadership Program에서 50부 구입



#### 2) 과학이 보인다 1권 (과학의 역사)

- 저자 : 양재승
- 출판일 : 2013년 2월 28일, 초판 800부
- 정가 13,800원

#### 3) 과학이 보인다 2권 (동아시아의 과학)

- 저자 : 양재승
- 출판일 : 2013년 2월 28일, 초판 800부
- 정가 14,800원



### (2) 인터넷 월간 뉴스레터 발간

- 1) 뉴스레터 31호(2013년 1월)~42호(2013년 12월) 발간, 홈페이지 게시
- 2) E-mail 메일링 리스트 2,400여 명에게 발송

### (3) 고려대학교 주최 “미래과학콘서트”에 책자 기증

- 10월 28-29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과학영웅과 함께하는 미래과학콘서트”에 참석한 전국의 과학영재 600명에게 식안연에서 출판한 “과학이 보인다(1,2권)”를 기증. 858만원 상당.

### (4) 쌀가공식품산업대전에 우리쌀 홍보자료 배포

- 2013년 10월 18-20일 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주최한 전시회에 재단에서 제작한 “우리쌀 얼마나 알고계신가요?” 1,000부를 제작 배포.

## (5) 홈페이지 관리운영

### 가. 홈페이지 업로드 상황 (2013년 1월 ~ 12월)

- 뉴스기사 326건, 논문 3건, 보고서 39건, 이사장칼럼 47건, 재단뉴스 16건, 뉴스레터 12건, 세미나 자료집 파일 12건, 동영상 3건, 갤러리 63건 등

### 나. 홈페이지 방문자 통계

- Usage Statistics for WWW. FOODSECURITY.OR.KR

Summary by Month										
Month	Daily Avg				Monthly Totals					
	Hits	Files	Pages	Visits	Sites	KBytes	Visits	Pages	Files	Hits
Mar 2014	7741	6501	5363	528	428	1849811	1584	16091	19503	23224
Feb 2014	6782	4902	3068	463	2224	24926064	12988	85910	137281	189902
Jan 2014	5463	3768	2220	342	2256	24227671	10629	68842	116808	169366
Dec 2013	6859	4447	2353	393	2878	51513400	12185	72947	137885	212635
Nov 2013	8728	5024	2358	386	3076	54420881	11590	70750	150723	261855
Oct 2013	8826	4729	2282	382	2920	45743388	11858	70769	146610	273525
Sep 2013	6461	3911	2314	301	2465	43318220	9051	69433	117346	193852
Aug 2013	6545	3699	2648	200	2099	17768257	6205	82102	114891	202899
Jul 2013	8412	5484	4286	200	1893	17899904	6228	132875	170011	260775
Jun 2013	6449	3847	2460	182	2304	20830542	5479	73803	115432	193496
May 2013	7644	4586	2726	203	2318	24604459	6293	84517	142168	236987
Apr 2013	8740	4420	2419	214	2583	27187146	6431	72573	132601	262201
<b>Totals</b>						<b>354289743</b>	<b>100521</b>	<b>900612</b>	<b>1501059</b>	<b>2480817</b>

## 2-5.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진행사항

### (1) 초청강연 및 토론 발표

- 3/15 대상(주) 경영자 세미나 - 식품안전과 식량안보 (대상빌딩)
- 3/20 제주국제센터 워크숍 - Overview of Food Security and Factors Causing Food Crisis (제주국제센터)
- 3/29 한국미래소비자포럼 - 국제 식품가격의 변화추이와 미래전망 (페리타워)
- 4/01 KDI국제정책대학원 강의 - 식량안보 (KDI국제정책대학원)
- 4/10 KDI국제정책대학원 강의 - 식량안보 (KDI국제정책대학원)
- 6/11 한림원타론회 - 통일식량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프레스센터)
- 10/11 KDI국제정책대학원 강의 - Food Security and Development (KDI국제정책대학원)

### (2) TV 출연 및 인터뷰

- 5/29 채널A '뉴스 와이드' - 식탁 위 GMO에 대한 오해와 진실
- 6/28 YTN 'YTN SCIENCE' - 과학, 미래를 열다 - 지구 온난화를 대비한 식량 생산기술
- 8/18 KBS 'KBS 1TV 미디어인사이드' - 식품 안전보도

### (3) 신문 잡지 기고문

- 1/11 해외곡물시장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 - 해외곡물시장동향
- 1/2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야 할 일 - 식품음료신문

- 1/22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안한다 - 식품음료신문
- 1/28 밥 예찬론 - 식품외식경제신문
- 1/31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소비안전처' 로 하자 - 식품음료신문
- 2/15 우리쌀 바로 알자 - 세계 식품과 농수산 2월호
- 2/25 쌀과 식용콩만이라도 자급해야 -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지
- 3/07 최고의 밥맛은 즉석밥? - 식품외식경제신문
- 3/18 개방화 시대에 우리쌀을 지키려면 - 대한급식신문
- 3/18 식량전쟁 닥친다, 식량안보에 관심 가져야 - CNB 저널
- 4/01 쌀 증산 및 수요 창출 방안 정책제언 - 식품음료신문
- 4/01 저소득층을 위한 쌀쿠폰 무상지급제도와 거버넌스 - 식품외식경제신문
- 4/15 '과학의 진실성 확보: 이해관계와의 충돌을 관리하기 위한 제언' - 한림원소식
- 4/18 저소득층 쌀 무상지원, 복지혜택 파급효과 크다 - CNB 저널
- 4/18 일본의 식량안보정책 동향과 시사점 - 세계농업 152호
- 5/13 GM식품 표시제 논란 - 식품외식경제신문
- 5/13 GMO의 과학적 진실과 국제 정치 - CNB저널
- 6/10 식품기업의 사회적 책임 - 식품외식경제
- 6/18 Life Devoted for Food Security - The Granite Tower (고대 영자신문)
- 6/27 GMO, 이미 우리 밥상을 점령하고 있다 - CNB저널
- 7/15 식량안보에 대한 불편한 진실 - CNB저널
- 7/19 식량을 통일 밀알로 삼아라 - 경인방송 더 스퀘프
- 7/22 일등후디스 승소가 의미하는 것 - 식품외식경제신문
- 8/19 식품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 CNB저널
- 8/19 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 식품외식경제
- 8/19 식품 가격정책, 이대로 좋은가? - 식품음료신문
- 9/03 세계는 지금 식량 전쟁 중 - 생각쟁이(웅진출판)
- 9/04 21세기 소리 없는 싸움, 종자 전쟁 - 다솜이 친구(교보생명)
- 9/17 '썩지 않는 햄버거' (?) - 식품외식경제
- 9/26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를 쓰자 - CNB저널
- 10/02 GMO반대론자가 GMO 전도사로 바뀐 까닭 - 코롤라이프코리아
- 10/21 김치 중주국의 위기 - 식품음료신문
- 10/21 식품가격과 식품안전 - 식품외식경제
- 10/25 음식문화 역사인식이 선진국 만든다 - CNB저널
- 11/11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식량안보 정책 방향 - 세계 식품과 농수산(11월호)
- 11/18 염장 발효음식에 대한 역사 인식 - 식품외식경제
- 11/18 '세계 식량의 날' 이 주는 메시지 - CNB저널
- 12/16 한식이 세계화 되어야 하는 이유 - 식품외식경제신문
- 12/19 장성택 실각 계기로 구체적인 통일 시나리오 마련해야 - 월간조선
- 12/23 과학기술이 열어갈 찬란한 미래 - CNB저널

### 3. 4차 년도 재무보고 (2013.01.01 ~ 2013.12.31) ■ ■ ■

(단위: 원)

수 입		
항목	내용	금액
후원금	대상	20,000,000
	농심	20,000,000
	CJ제일제당	20,000,000
	삼양제넥스	20,000,000
	한국제분	10,000,000
	한태동교수	10,000,000
	박관희 회장	5,000,000
	이시호	1,000,000
	소계	106,000,000
이자수익	이자&세금환급	4,220,369
도서판매수익	식안연 발간책자	11,235,882
세미나지원금	농협중앙회	3,000,0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000,000
	크롭라이프코리아	6,726,600
	한국식품산업협회	14,000,000
전년이월		46,946,495
총 계		194,129,346

지 출		
항목	금액	
인건비	21,987,550	
복리후생비	1,000,000	
회의비 (Mark Lynas, 간담회)	26,905,972	
통신비	556,940	
세금과 공과금	963,680	
보험료	3,425,050	
유인물비	19,743,530	
홍보비	4,070,000	
운영비	12,554,210	
임대료 (세미나)	968,000	
연구개발비	10,000,000	
연구용역비	14,340,000	
학회 심포지엄 지원금	10,000,000	
소계		126,514,932
출판사업	도서 제작비	17,317,630
	번역비	4,530,680
	배본료	5,582,093
	소계	27,430,403
총 계		153,945,335

수 입	194,129,346
지 출	153,945,335
잔 액	40,184,011
출연금	100,000,000
총 잔액	140,184,011

외부 위탁 과제 (재단 수입 아님)		
	농촌경제연구원	과학기술한림원
총연구비	10,000,000	30,000,000
수 입	10,000,000	30,000,000
지 출	10,000,000	30,000,000

## 4. 2014년도 사업계획

### 4-1. 연구사업

#### (1) 식품 가격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 \* 연구기간 : 2014년 1월 - 12월 (1년 과제)
- \* 연구책임자 : 이철호 교수(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 공동연구자 : 박현진 교수(고려대 식품공학부), 안병일 교수(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 \* 연구비 : 3,000만원

#### (2) 세계 식량위기를 해결할 식량생산 신기술 연구

- \* 연구기간 : 2014년 1월 - 12월 (1년 과제)
- \* 연구자 : 개인 또는 단체의 연구계획서에 의한 공모
- \* 연구비 : 과제당 2,000만원

### 4-2.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 (1) 제 12회 식량안보세미나

- \* 제목 : 식품가격정책 토론회
- \* 일시 : 2014년 6월 또는 9월
- \* 주최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 \* 후원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2) 제 13회 식량안보세미나

- \* 제목 : 식량생산 신기술
- \* 일시 : 2014년 9월
- \* 주최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4-3. 출판사업

#### (1) 선진국의 조건 - 식량자급

- \* 저자 : 이철호, 문현팔, 김용택, 이숙중, 이꽃임
- \* 출판예정일 : 2014년 3월
- \* 정가 : 미정

#### (2) Korea Unification and Food Security

- \* 저자 : 이철호, 문현팔, 김세권, 김용택, 박태균, 권익부
- \* 번역자 : 이지샘, 원어민 교정 중
- \* 출판예정일 : 2014년 6월
- \* 정가 : 미정

#### (3) 콩 스토리텔링

- \* 저자 : 유미경(콩세계과학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 \* 출판예정일 : 2014년 6월
- \* 정가 : 미정

## 5. 2014년도 예산 ■ ■ ■

### 5-1. 재단 운영비

(단위: 원)

항 목	세 부 내 용		금 액	합 계
인건비	사무원(170만원/월)		20,400,000	35,000,000
	연구원 및 기타 인건비		14,600,000	
연구사업 지원	식품가격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30,000,000	50,000,000
	세계 식량위기를 해결 할 식량생산 신기술 연구		20,000,000	
저술지원사업	단 행 본 출 판	Korea Unification and Food Security	10,000,000	33,000,000
		선진국의 조건 - 식량안보	8,000,000	
		콩 스토리텔링	10,000,000	
		출판협동조합 관리비	5,000,000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식량안보세미나 2회		14,000,000	19,000,000
	식량안보 간담회 5회		5,000,000	
회의비/사무실 운영비	회의비(총회, 이사회, 자문위원회, 기타)		3,000,000	18,000,000
	사무실 운영비(임대료, 관리비, 기타)		5,000,000	
	홍보, 광고비(홈페이지 운영, 기타)		5,000,000	
	후생복지비		3,000,000	
	활동비		2,000,000	
소 계			155,000,000	

## 6. 이사장 칼럼 ■■■

GMO의 과학적 진실과 국제 정치 - CNB저널 [ 2013-05-13 15:53:43 ]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고려대 명예교수)

유전자재조합생명체(GMO) 사용을 반대해 오던 영국의 환경운동가 마크 라이너스(Mark Lynas)가 지난 1월 3일 옥스퍼드농민대회에서 GMO 반대운동에 앞장서온 자신의 행동이 과학을 무시한 잘못된 것이었음을 시인하고 공개 사과했다. 마크 라이너스는 에딘버러대학에서 역사 정치학을 공부한 인문학도로 깊은 과학적 지식 없이 1990년대 중반부터 GMO 반대 운동에 앞장섰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WTO 무역자유화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어 미국이나 중남미에서 들어오는 값싼 GM 곡물로부터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GMO 안전성 논란은 국익에 부합되는 일이었다. 대부분 식량을 자급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GM 농산물에 대한 표시제를 강화함으로써 값싼 외국 농산물의 수입을 막는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마크 라이너스는 시민운동가로서 GMO 반대운동은 가장 성공적인 운동이었다고 자평한다. 유럽에서 시작된 GMO 유해론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퍼져나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GM 작물 불매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후일 환경운동가로서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책(대표작: 6 Degrees: Our Future on a Hotter Planet, 6도 더워진 지구에서 인류의 미래)들을 쓰면서 그는 과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가 주장했던 GMO 유해론이 과학적 사실을 무시한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생명공학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자책하고,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공개 사과를 한 것이다.

전 세계는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마크 라이너스가 잘못을 인정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지난 20년간 미국인을 비롯한 세계 수억 명이 GM 곡물을

먹고 있으나 아직 GM 곡물을 먹고 이상 징후를 나타내었다는 보고가 한건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유럽 과학자들도 GMO의 안전성 검증은 이제 끝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재조합된 생명체가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다. 수천가지의 재조합 생명체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나 그중에서 안전하다고 인정되어 실험실 밖으로 나와 재배되고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GMO는 백여 종류에 불과하다. 하나의 유전자재조합 생명체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후 그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간이 4-5년 걸리고 여기에 드는 비용이 평균 1억3900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

안전성이 확인되어 재배 생산이 된 후 GM 작물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면 수입국에서 다시 그 나라의 기준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하는데 3-5년이 걸린다. 이렇게 철저하게 오랫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야 GM 작물이 상업화되므로 웬만한 규모의 회사는 그 개발을 염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이 일을 주도하게 되고 막대하게 들어간 개발비를 뽑기 위해 종자 특허를 내어 비싸게 팔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몇 개의 공룡기업들이 GM 종자를 독점해 전 세계의 농업을 장악하고 이들이 카길 등 곡물메이저들과 연합하면 세계인의 식량이 이들의 손안에 종속된다는 우려이다. 이들 공룡기업들이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와 가격을 결정해 세계 농민을 새로운 형태의 노예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식량 대국들이 식량으로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식량의 무기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GMO의 문제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 경제의 문제가 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정치의 새로운 틀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 식품 가격정책, 이대로 좋은가? - 식품음료신문 [ 2013-08-19 17:01:34 ]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고려대 명예교수)

변질된 저급 원료로 ‘맛가루’를 만들어 판매한 사람이 구속돼 소비자들이 또 한 번 놀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나 버려야 하는 육재료를 곰팡짐에 대량으로 공급해온 업자가 구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다. 소비자들의 경악과 식품에 대한 불안감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불량식품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4대약의 하나로 규정하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

식품산업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근 일어나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부정식품 사건들의 원인이 감지되고 있다. 혹자는 ‘올 것이 왔다’라고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나는 식품공학과 교수로 30년을 봉직했던 사람이라 주변에 중소 식품기업을 경영하는 졸업생들을 많이 본다. 그들은 꽤 탄탄한 기술력으로 식품 중간소재를 생산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그들로부터 최근 자주 듣는 말이 있다. ‘00기업에 납품하던 저희 제품을 포기했습니다. 점점 심하게 후려치는 납품가격을 맞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격으로 납품하는 경쟁회사들이 있어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 가격으로는 정상적인 제품을 만들 수 없어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인정원과 공동으로 2011년 8월에 ‘식품안전과 식품가격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2008년 세계 곡물파동 이후 MB물가에 묶여 고통 받는 식품산업의 현실을 알리고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 세미나에서 국산 식품가격을 세계 식품가격 변동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잉여농산물의 시대가 지나가고 식량 메이저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FAO식품가격지수가 200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 식품가격을 무리하게 억누르는 것은 미래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장바구니 물가에 지나치게 민감해 하는 정부나 정치인들의 구시대적 인식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식품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통신티나 교육비, 주거비에 비해 훨씬 낮아졌다. 서민 물가를 잡는다고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해서 가격을 폭락시켜 농민을 울리는 일을 당연한 것처럼 반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득을 보는 계층은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농민보다 훨씬 형편이 나은 중산층과 고소득자들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식품 가격정책이다. 저소득층에게는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식량지원을 하고 식품가격은 세계 추세에 맞게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우유 값을 10% 정도 올리는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유통업체까지 가세하여 압박을 가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사료곡물 수입가격이 2~3배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기세이다. 우유 값 10% 인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언젠가는 더 큰 폭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리하게 가격을 억누르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식품의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단체들이 우유 값 10% 인상을 반대하는 불매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식품에 불량식품이 많다고 하는 한국인들에게 중국인들이 하는 말이 있다. 가장 싼 것을 찾아 수입해가면서 불량식품이라고 탓한다는 것이다. 일본이나 대만은 좋은 제품을 제값을 주고 사가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싸구려만 찾도록 만드는 식품가격 정책은 하루속히 재고되어야 한다.

값비싼 수입식품은 날개돋친 듯 팔리는데 국산 고급 식품에는 거부감을 갖는 사회에서 식품산업은 발전할 수 없으며 소비자들도 제대로 대접받을 수 없게 된다.

## 【월요논단】 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식품외식경제 [2013-08-19 16:59:34]

이철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우리 국민의 유통기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막대한 식품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못 먹는 것으로 알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버리고 있다. 식품 학계나 업계에서 볼 때 이걸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

식품의 유통기한은 규정된 저장조건에서 원래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는 기간(상미기간)의 70%에서 설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냉장고에서 유통 판매되는 우유의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7일 이후라면 상미기간은 10일이다. 소비자가 유통기한 마지막 날에 구입해도 가정의 냉장고에 보관하면 3일 동안은 원래 맛과 동일한 품질의 우유를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식품 관리당국에서 나온 감독관들이나 시민 감시원들이 식품 접객업소 저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발견되면 위법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이것을 언론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관리 당국과 언론이 유통기한을 잘못 알고 취한 관행이 온 국민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마구 버리게 한 것이다.

실제로 식품의 품질이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는 기간(소비기한)은 상미기간보다 훨씬 길다. 소비자보호원의 발표에 의하면 유통기한이 제조일 이후 5~7일인 우유의 경우 집의 냉장고에서 제대로 보관하면 제조 후 30일까지도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유통기한이 9개월인 냉동만두는 유통기한 만료 후 25일이 지나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냉장 빵류는 20일, 건면은 50일이 지나도 안전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접객업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발견되면 문제 삼고 입건하는 현행 관리 관행은 크게 잘못된 일이며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 포장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자는 제안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등의 이유로 평균

1.8%의 제품이 반품되고 있으며 금액으로 연간 61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소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식품을 버리는 양은 이보다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공급 식량의 30%, 연간 500만t, 20조원으로 추산되는 식량손실의 대부분이 유통기한 표시제도의 불합리한 운용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가공식품에 대해 상미기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유통기한보다 30% 연장된 판매기간이다. 그럼에도 반품 폐기되는 식품을 더 줄이기 위해 최근 34개 주요 도소매 업체들이 상미기간 1/3이내에 식품제조업소가 납품하도록 하던 관행을 상미기간 1/2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서 1천억 엔 이상의 폐기식품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소비만료일을 표시하고 있으며 EU와 호주는 사용기간을 표시하고 있다.

세계 각국들이 막대한 식량손실을 막기 위해 유통 판매기간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식량자급률이 대단히 낮은 우리나라는 가장 짧은 판매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운용도 잘못하고 있다. 2011년 8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주최한 '식품안전과 식품가격 정책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고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식량손실을 막고 식품가격 안정을 위해 유통기한 표시제도를 개선할 것을 적극 거론하였으나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대를 의식한 해당 부처들의 미온적인 자세로 소비기한의 표시제도가 좌절되었다.

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시하는 것은 유통 판매과정의 식품안전을 보장하면서 식품 폐기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책이다.

이것은 일본의 상미기간 표시보다 안전 수준은 더 높으면서 소비자들의 유통기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 음식을 아끼게 하는 방법이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버리지 않고 푸드뱅크나 자선사업단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식품 폐기량을 반으로 줄이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15% 높일 수 있다.

식량자급률 1% 올리는데 줄잡아 1조원의 생산비 증가가 요구된다고 한다. 소비기한 표시가 가져올 국가적 이익을 생각하면 이 제도의 시행을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것이다.

사)대한민국전통음식총연합회 심포지엄 ‘한국전통음식의 DNA와 그 발전적 미래’

2013년 11월 29일, 서울 롯데호텔 <토론자 발표>

**음식문화 역사인식이 선진국 만든다.**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세계 고대문명의 발상지에는 어김없이 술의 신(酒神)이 등장한다. 이집트의 오시리스, 히랍의 박커스, 인도의 소마, 중국 우(禹)임금의 딸 의적(儀狄)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선진 문명의 발달에는 음식문화의 역할이 컸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구려 패망 이후 대부분의 역사가 중국에 복속되어 우리것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 한국 음식문화의 원류를 찾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동북아시아의 3대 국가인 중국, 한국, 일본은 쌀과 콩을 주식으로 하고 같은 두장 문화권에 속해 있어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두 중국문화권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동북아의 고대사나 신화체계도 세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고대사의 대부분이 기원전 1000년경에 사용하기 시작한 한자(漢字)를 이용하여 그 시대 중원을 차지한 하화족(夏華族)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중국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에 반해 한단고기(桓檀古記)의 기록들은 기원전 7천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동북아의 맹주 한(韓)민족의 잊혀진 역사를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이해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식품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국 고전과 조선시대의 기록에 근거하거나 일본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는데 그쳤다. 그래서 삼국사기 신라본기 신문왕 3년(서기 683년)의 폐백품목에 장(醬)과 시(豉, 메

주)가 처음 기술되었다하여 이를 장류발효의 시작으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한반도에서 발효문화가 시작된 것은 역사시대 훨씬 이전의 일인데도 문헌상으로 말하다 보니 커다란 오류를 범하게 된다. 더구나 문헌으로는 잊혀진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음식문화의 원류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음식문화의 원류를 찾으려면 역사 이전의 선사시대 고고학적 유물에서 시작해야 한다. 다행히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고고학 연구가 큰 성과를 거두어 선사시대 우리 음식문화의 원류를 부족하나마 더듬을 수 있게 되었다.

**한반도 원시토기문화시대(BC8000-3000년)가 동아시아 발효문화를 선도했다.**

중국 고대사에서 동이족(東夷族)은 한족(漢族)과 대등한 세력을 행사했던 거대 민족으로 중국문명의 이른 시기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민족으로 묘사되어 있다. 우리의 선조 동이족이 동북아 국가형성기(기원전 3000년경)에 이 지역의 엘리트 집단으로 군림하여 동아시아 문화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식량 생산기술과 저장 조리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반도 구석기시대 주거지에서 쌀, 피, 기장, 콩의 화분이 발견되고 이른 신석기 유물에서 토기가 발견되어 이 지역이

동북아 발효문화의 기원지임을 깨닫게 한다. 토기를 사용함으로써 바닷물에 푸성귀를 절여 김치를 만들었고 생선을 절여 젓갈을 만들 수 있었다. 젓은 곡물과 뿌리를 토기에 보관하던 중 곰팡이가 자라 누룩이 되고 술이 되었다. 시경(詩經)에 요주천종(堯酒千種)이라 적혀 있는 것을 보면 기원전 2천년경의 요(堯)나라 시절에 이미 수많은 종류의 술이 빚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한반도에서 토기에 술을 만들기 시작한지 2-3천년이 지난 후의 일이다.

한반도에서 원시토기문화를 꽃피웠던 동이족은 발효기술의 발전으로 식량의 장기 저장이 가능했고 토기에 끓여 먹는 조리법을 개발하여 위생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기원전 2000년 전후에는 이 지역에서 콩을 식용으로 사용한 흔적이 뚜렷하며 오랜 전통의 발효기술이 장류발효 기술로 발전하여 단백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진다. 동이족이 이룩한 식품저장 조리기술의 발달로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였고 체구와 체력이 주변 민족보다 월등해지면서 동북아의 지배세력이 된 것이다. 이러한 영양인류학적 추론은 고조선이 중국의 고대국가 하(夏), 은(殷), 주(周)를 앞서는 동북아 국가형성기 초기의 국가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우리는 지금도 투박한 토기에 부극부글 끓는 된장찌개를 밥상에 올려놓고 먹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특이한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간장, 된장 발효기술을 중국과 일본에 전파하여 동북아시아의 두장문화를 열었으며 동아시아 음식맛의 뿌리를 만들었다. 토기에 찌개를 끓여먹으면서 이른 시기에 소금 제조기술을 개발했고 젓갈 제조기술을 발전시켜 동남아에 전파함으로써 동남아 어장문화의 태동에 기여했다.

### 한식은 쌀과 콩을 기본으로 하는 건강식이다.

음식문화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형성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볶음(소리리법 씨, 14000년전)가 한반도에서 발견되고 콩의 원산지가 남만주와 한반도 지역이라는 사실은 한국인의 음식문화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쌀과 콩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한국인은 쌀밥에 콩반찬(두부, 콩나물, 된장찌

개)만 있으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한식으로 손꼽히는 비빔밥과 떡볶이의 기본은 쌀과 고추장이다. 쇠고기를 간장에 채워 굽는 불고기는 북쪽에서 유입된 유목민족의 육식문화와 한반도 토착민의 두장문화가 결합된 산물이다. 토기에 물을 끓여 밥을 짓고 찌개나 탕을 끓이는 조리법은 주로 기름에 들들볶거나 밀가루 음식(만두)을 찌는 중국의 조리법과는 분명히 차이를 보인다. 콩을 물에 담귀 끓임으로서 영양저해요소를 제거하는 조리법의 발견도 토기를 이용한 끓임문화에서 가능한 것이다. 원시토기문화에서 시작된 쌀과 콩을 위주로 하는 한식은 동물성식품 과다 섭취로 비만과 고지혈증, 심장병, 암으로 고생하는 서양 사람들의 만성적인 대사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음식이다. 한국전통 식단의 에너지 구성은 탄수화물 75, 단백질 15, 지방 10의 비율로 되어 있다. 서양 사람들의 식단에서 지방에너지 비율이 30% 이상이라고 우리 식단의 지방에너지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유와 육류를 위주로 하는 서양 음식에서 지방에너지를 30%이하로 낮추기가 어렵다. 오히려 1980년대에 우리 식단이 서구화 영향을 받아 지방에너지가 10%를 넘으면서 당뇨병과 암 등 각종 성인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쌀과 콩을 기본으로 하는 한국의 전통식단은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이며 서양의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 가르쳐야 할 음식문화이다. 한식의 세계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식량안보 측면에서 쌀과 식용콩을 반드시 자급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쌀의 자급을 위해 전력투구했고 그 결과 쌀의 자급을 달성했다. 그러나 식용콩의 자급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한반도 한 적이 없다. 연간 필요한 식용콩의 양은 40만 톤 수준이나 국내 생산량은 15만 톤 정도이다. 우리 음식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식용콩을 자급하려는 정책이지만 있으면 연 40만 톤 생산은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다. 식량자급은 선진국의 조건이다. 쌀과 식용콩을 자급하면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 식품산업이 한식세계화의 첨병이 되어야 한다.

한식 세계화는 문화 수출이며 국격을 높이는 일이다. 우

리가 한국 음식문화의 원류를 찾고 한식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연구하는 것은 국격을 높이고 한식의 가치를 높이라는 노력이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교하면 많이 뒤떨어져 있다. 일본의 기꼬망회사는 1999년도에 기꼬망국제식문화연구소를 설립하고 2000년부터 Food Culture라는 영문잡지를 발간하고 있다. 이 잡지 1호와 2호에 로이이지 이이노 교수가 “간장의 역사”를 문헌 고증을 통해 비교적 자세히 연구하여 연재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간장의 기원은 중국이고 12-13세기에 일본이 개량 발전시킨 것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나무랄 수는 없다. 우리것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연구하여 세계인이 읽을 수 있도록 발표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다.

한식이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문화에 과학기술이 접목되어 실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맛(기호성), 저장성, 편의성, 안전성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비빔밥을 뉴욕 거리에서 맛보이고 한식 식당을 여러개 개설해서 한국의 조화미(調和味)를 선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맛과 멋에 더하여 상품성이 있는 한국음식과 음식재료가 제품으로 만들어져 세계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그동안 전통식품의 산업화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통식품의 산업화는 다른 제품과는 달리 재료의 선택, 품질 표준, 제조공정, 저장성과 포장, 보관 유통 방법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노력으로 새롭게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 햄, 소시지, 빵, 요거트, 아이스크림 등 서양에서 산업화한 제품은 제조기계와 가공방법, 유통방법들을 사오거나 배워서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전통식품 산업화는 연구방법을 스스로 개발해야하며, 전통적인 소규모 가내생산에서 하던 것을 대규모 자동화 생산으로 확대하기 위한 모든 설비와 공정을 우리의 힘으로 설계하고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므로 전통식품 산업화는 충분한 자본을 가진 대기업들이 우리것을 발전시키려는 의지와 사명감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성공에 대한 확실성이 낮고, 제도적 제약도 많고, 많은 시간과 투자가 요구되는 전통식품 산업화에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제 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조미료, 술, 김치, 라면, 즉석밥, 떡볶이, 음료들이 세계 시장에서 고급 제품으로 팔리고 있다. 한국의 맛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건강 욕구를 충족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성공 사례를 모아 ‘식품산업, 한식세계화에 날개 달다(식안연, 2012)’라는 책을 출판했다. 세계에 진출한 대표적인 우리 식품들의 역사와 과학과 판매 전략을 자세히 기술하여 세계화 경험을 공유한 것이다. 우리 정부와 학계, 업계, 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 우리 식품산업의 세계화 전략을 지원해야 한식의 세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 【참고문헌】

- (1) 이철호, 동북아시아 구석기시대의 식생활 환경, 민족문화연구 제31집, 415-453, 1998
- (2) 이철호, 동북아시아 원시토기문화시대의 특징과 식품사적 중요성, 민족문화연구 제32집, 325-427, 1999
- (3) Cherl-Ho Lee, Fermentation Technology in Korea, Korea University Press, 2001
- (4) 이철호, 권태완, 한국식품학입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3
- (5) 이철호, 권태완, 콩의 이용 역사, 콩, 한국콩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 (6)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식품산업 한식세계화에 날개 달다, 도서출판 식안연, 2012

www.foodsecurity.or.kr

로그인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공지사항 바로가기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

twitter

재단소개
한국 식량안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중장적인 식량안보정책의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DATA ROOM
각종 자료실 안내합니다.

동영상 갤러리
식량안보 관련된 동영상 및 갤러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바로가기

상/담/문의/전화
02.929.2751
FAX 02.927.5201



Grid of content cards including: [연구지원사업], [+세미나], [+뉴스레터], [+출판사업], [+논문], [+뉴스기사], [동영상], and [갤러리].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